

북한의 화장품 정책과 성분 분석에 관한 연구: 64개 기초 및 색조화장품을 중심으로

남성욱*, 오준철**, 채수란***, 이가영****, 배진*****

- | | |
|-------------------------|------------------------|
| I. 문제제기 | III. 화장품 성분분석의 결과와 함의 |
| II. 북한의 화장품 생산정책 연혁과 함의 | IV. 북한 화장품의 품질 특성 및 평가 |
| | V. 결론 |

국 문 초 록

현재 북한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을 직접 입수하여 내용물의 전성분 분석을 통해 북한의 화학공업 현황은 물론 인민의 소비생활에 대한 '민낯'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북한의 화장품에 대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80개의 북한 화장품 품목 중에서 64개의 북한 화장품을 현지에서 입수하여 제조기술 측면에서 분석했다. 둘째, 본 연구는 북한의 화장품 생산정책과 지도자의 관심을 분석했다. 셋째, 주민들의 생산품에 대한 품질과 북한 화장품의 사용 실태를 교차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200명의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성분분석 결과 북한 화장품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 화장품에는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전체 64개의 분석대상 품목 중 7개(11%) 제품에서 유해성 이슈가 존재하는 성분이 검출되었다. 둘째, 제품의 성분표기에 기입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되었다. 전체 64개의 분석대상 품목 중 17개(27%) 제품에서 성분표기에 기입되어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었다. 셋째, 제품의 성분표기에 기입되어 있는 성분이 실제로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전체 64개의 분석대상 품목 중 19개(30%) 제품에서 제품의 성분표기에 기입되어 있는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 북한 화장품이 입수된 시점에서의 북한의 화장품 생산 기술은 기초 화장품은 국내의 1990년대, 색조화장품은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정영의 반복된 현지지도와 독려에 따라 북한 화장품 업계는 자동화·무인화 공정을 강화하고 원료의 국산화를 도모하는 등 경쟁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주제어:** 북한 화장품정책, 전성분검사,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경공업 정책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과 교수, 제1저자

논문 및 저서 『북한여성과 코스메틱』 2017, 서울: 한울아카데미. 외 다수.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공동저자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공동저자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공동저자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공동저자

I. 문제제기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된 인간은 외모를 꾸미기 시작하였고 화장은 중요한 수단이었다. 벌랜드(Burlando)는 화장의 역사가 기원전 3500년경의 고대 그리스, 로마 및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Bruno Burlando, 2010: 29). 미의 기준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고 화장의 역사 또한 유사한 변천의 과정을 겪었다. 최근 국내외 화장품 시장에 남성용 미용제품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외모나 이미지에 관심이 많은 남자, 즉 ‘그루밍족(grooming)’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김지영, 2014: 1). 화장의 욕구가 거의 인류의 진화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할 정도로 오래됨에 따라 화장품의 개발도 인류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되었다. 화장의 욕망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의 하나인 북한도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권 창설초기부터 화장품 생산에 주력해왔다.

북한은 1946년 남녀평등권의 발표 등 각종 기초 법령을 공포한 이래 인민들이 검소하게 생활하며 절약하는 행태를 국가의 기본적인 문화와 풍습으로 확정했다. 당국은 인민들이 소박하고 알뜰하게 생활하는 습관을 체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생활풍조는 식생활, 옷차림, 주택생활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화장 문화에서도 나타난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은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고 화장 시에도 진한 색조화장을 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외모는 드러나지 않고 수수하게 보이도록 하는 모습이 미덕이다. 행동거지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사표현을 하기 보다는 다소 부끄러워하며 수줍어하는 행동을 여성스럽고 아름답다고 여긴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전통적인 여성상으로 설정하고 있다(조선여성, 2016: 48). 따라서 북한의 화장

품 공장들은 자외선 등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1단계 기초화장품(fundamental cosmetics) 생산에 주력하였다. 화려하고 색조감을 살리는 2단계 색조화장(make-up) 문화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것은 엄숙하고 경직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다. 현재까지 기초와 색조화장품 모두 북한이 자체적으로 완전하게 제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색조화장품의 개발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다만 북한은 화장품 생산의 세계적인 경향만은 충분히 인식하여 최근에는 각종 향수는 물론 마스크 팩(미안막, 美顏幕)까지 생산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지도자들의 화장품 생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3세대 지도자 김정은의 화장품 공장에 대한 현지지도는 물론 북한 화장품과 선진국 화장품을 직접 비교 평가하는 발언이 소개될 정도로 화장품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북한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초 및 색조 등 64개의 각종 화장품을 입수하여 내용물의 전성분 검사¹⁾에 따른 화학공업과 용기 생산에 따른 금형기술 등 북한의 경공업 현황은 물론 국민의 소비재 생산 및 이용 실상에 대한 ‘민낯’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

1)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표시지정성분’이라고, 해로워서 소비자가 주의해야 되는 성분만 표기했고, 많이 들어 있는 성분들은 알려주지 않았다. 덕분에 피부 트러블이 생겨도 뭇 때문에 생겼는지, 고가 제품이 정말 좋은 게 포함되어서 비싼 것인지 확인할 방도가 없었다. 반면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할 때엔 외국에서 까다로운 성분 검증에 들어가는데, 업체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면역성이 부족했다. 미국, EU, 일본, 호주,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일찌감치 전성분제를 시행한 후에야 우리나라는 뒤늦게 따라갔다. 전성분 표시제에 따르면 모든 성분을 많은 것부터 적은 것 순으로 표기해야 하며 1% 이하로 들어간 성분과 향료, 색소는 그것들끼리 순서에 관계없이 표기할 수 있다. 성분들 중 배합 한도가 지정된 성분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성분은 그 한도보다 적게 들었던 뜻이 된다. 또 성분 중 하나를 제품 이름으로 썼으면 그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래서 전성분 표시를 보면 광고와는 다른, 그 제품의 속살이 드러난다. 다음백과, “전성분표시제”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58XX49100010>(검색일: 2017년 5월 10일).

성분 표시제'란 2008년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행한 법으로 화장품에 들어 있는 모든 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제품에 포함된 실제 성분 등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다. 북한 화장품에 대한 성분 분석 연구는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일부 여성들의 삶과 소비행태에 대한 기초연구가 진행되었을 뿐이다. 화장품 등 경공업 생산 및 소비는 주제가 매우 각론적이고 현장 접근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제품을 확보할 연구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이 연구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다.

북한 화장품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화장품의 소비층인 북한 여성들의 삶에 대한 연구들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숙자(1995)는 『조선여성』 분석을 통해 북한이 지향하는 네 가지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도출해 냈다. 이명휘(2010)는 북한의 사경제 발달로 인한 북한여성의 역할변화를 분석하였다. 양옥경·이미경(2010)은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축소로 인한 가족경제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북한여성의 생활과 의식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성욱(2016)은 문헌연구와 통계분석, 초점집단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사회의 바람직한 여성상과 이에 따라 나타나는 북한 여성들의 삶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화장품 관련연구는 주로 소비행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유창조(2005)는 국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의 화장에 대한 욕구와 그에 따른 소비행위를 분석하여 화장의 범위와 유형, 상표 선택과정, 화장품 구매과정에 추구되는 가치 등을 분석하였다. 김정희(2006)는 통계분석을 통해 피부 타입과 기초화장품의 사용실태에 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영주(2016)는 설문과 회귀분석을 통해 여성의 외모 관심도가 화장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첫째, 북한의 화장품

생산정책의 연혁과 최고지도자들의 화장품 공장에 대한 현지지도 실상과 함의를 검토했다. 김일성, 김정일 및 김정은 시대를 구분하여 북한 지도자들의 화장품 생산 정책의 추진 의의를 파악했다. 둘째, 평양에서 직접 조달한 64개 화장품의 제조 성분을 분석하여 북한 화학공업과 금형산업 등의 발전 수준을 분석했다. 북한의 화장품에 대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초로 64개의 북한 화장품을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화장품의 성분 분석은 국내 1위의 화장품 제조사인 (주)아모레퍼시픽기술연구소에서 2016년 9~12월간 진행되었다. 셋째, 같은 기간 동안에 북한의 화장품 생산 정책과 화장품의 사용 실태를 교차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200명의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화장품 사용의 경험과 남한에서의 화장품 애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병행했다.²⁾ 설문 조사 결과 북한에서도 여성들의 화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화장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을 포함하여 기초화장 정도를 하였다는 응답이 61.1%로 가장 많았다. 파운데이션, 파우더, 비비크림 정도로 피부색을 보정하고 잡티를 가리는 정도의 피부 위주의 화장은 19.8%가 하였고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6.7%이 있었다. 아이메이크업, 립스틱의 색조화장까지 한 경우는 6.8%에 불과했

2) 한민족인 남북한 여성들은 미의식과 화장 문화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까? 비교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했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 응답 후 직접 회수하였다. 본 조사의 기획, 조사표 개발, 조사 지침서 작성, 자료수집, 실사관리, 데이터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은 (사)남북경제연구원이 전담하였다. 모든 문항에 정확하게 응답한 설문지는 총 167부로 이를 통계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 분석 과정에서 설문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을 위하여 탈북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 대상은 북한 사회에서 상위 계층의 전문직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여, 북한 사회와 한국 사회의 미에 대한 인식과 현상을 비교분석하는 등 포괄적으로 해석하였다.

다. 북한에서는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티가 나지 않게 기초나 피부화장 위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남성욱, 2017: 75-103).

II. 북한의 화장품 생산정책 연혁과 함의

1. 김일성 시대

북한의 화장품 생산에 대한 최초의 시대적 배경은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일성저작집』 제47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에서는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시절 화장품과 관련된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김일성, 1997: 118-119).

우리가 로획한 전리품들 속에는 종종 분이나 크림과 같은 화장품들이 섞여있을 때도 있었다. 처음에 우리 대원들은 그런 화장품들이 보이기만 하면 개울 속에 집어던지든가 발로 막 짓밟개 놓곤 하였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들이라고 생각해서였다. 나는 이것을 분하게 여기었다. 여성들이 일 년 내내 분도 바르지 못하고 고생스레 살아가는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대원들에게 말하였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화장품을 버리지 말자. 우리의 곁에도 녀성들이 있지 않은가. 유격구의 녀성들은 녀성이 아니라던가. 우리의 녀대원들과 부녀회원들보다 더 훌륭한 여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대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내 말에 호응하였다. ‘웁습니다. 화장품이 생기면 분도 바르라고 합시다.’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북한은 화장품 생산에 제한적인 역량만을 투입했다.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빠른 경제발전을 위해 중공업 위주의 성장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대부분

의 국가 자원을 중공업에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당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한 중공업 우선정책(Janos Kornai, 1992: 173)에 주력했다. 김일성은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 복구발전을 위하여” 제하의 발표를 통해 중공업 우선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일성, 1953). 따라서 인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공업에 해당하는 화장품 생산에는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되었다. 둘째, 화장 등으로 외모를 화사하게 가꾸는 행위는 북한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1948년 조선민주여성동맹의 기관지인 『조선녀성』을 창간하여 여성을 정치적으로 계몽하고자 했다. 김일성이 제시한 바람직한 여성상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사회주의 혁명 건설투쟁에 나서는 여성이었다(김양희, 2011: 300). 결국 화장은 여성들의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시급하지 않은 과제였다. 하지만 다른 경공업 분야와 달리 중공업 우선 정책 속에서도 화장품 공장은 예외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초기부터 건설되었다. 북한 여성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다른 소비재에 비해 비교적 일찍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여성을 움직여야 남성을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김일성의 판단 때문이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인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고 6월에는 징병을 실시하는 군사력 증강 과정 속에서도 1949년에 신의주화장품공장³⁾을, 1957년에 평양화장품공장⁴⁾을 각각 건설하였다.

3)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화장품 생산 공장은 신의주화장품공장이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은 1949년 9월 23일 창설되었다. 연건평 24,000여㎡의 부지에 비누직장, 치약직장, 화장품직장, 보조직장, 공업시험실, 기술준비실 등 수십 동의 건물로 구성된 북한 최대의 공장규모를 자랑한다. ‘봄향기’ 브랜드를 생산하며 주요 생산품목은 화장비누, 치약, 화장크림, 머릿기름, 향수이다.

4) 2002년 9월 13일에는 치약직장 조업식을 거행하였다. 2003년 11월에는 세안비누 이송 컨베이어벨트를 제작·도입했으며 2004년에는 생산

2. 김정일 시대

화장품 육성정책은 북한의 2대 지도자인 김정일 시대에서도 계속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경공업을 경제건설의 매우 중요한 고리로 중시하였고, 1984년 2월 16일 연설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를 통해 인민소비품의 생산을 강조하였다(김정일, 1984).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경공업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질 좋은 여러 가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고 문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공업혁명을 일으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같은 해 8월 3일 상업부문 책임일군들과의 대화를 정리한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 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라는 담화는 경공업이 인민들에게 풍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이라는 인식을 김정일이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정일은 2003년 8월에 평양화장품공장을 방문하였다. 김정일 방문이후 평양화장품공장의 유학천 지배인은 노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인민들에게 질 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안겨줄 데 대한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공장의 전 힘을 기술혁신에 쏟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방문 이후 공장은 기술혁신 열풍을 일으켜 소비자의 취향을 신제품 개발의 출발점으로 삼고 생산 공정도 그에 맞게 바꿨다. 신제품 개발에 핵심부서인 '기술준비실'의 역할도 강화하였

공정 무균화를 실현하고 손 소독 비누와 머리물비누 생산을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고려약재인 울금, 단삼, 속썩은 풀, 익모초 등의 추출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여드름방지 살결물을 출시하였다. 2010년 화장품 직장의 크림생산 공정의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화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가루비누 생산 공정을 건설하였다.

다. 생산 공정의 대대적인 개선이후 평양화장품공장은 2007년에 수세 미오이살결물(스킨로션), 남성화장품세트, 미안(美顔)크림, 황백치약 등 10여 종의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하는 성과를 냈다(데일리NK, 2008/02/20). 최고지도자가 공장을 현지 지도한다는 것은 각종 원료와 자재 및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평양화장품공장은 최고지도자의 관심을 받아 북한에서 최고의 화장품 생산 공장이 되었다.

김정일은 2008년 11월에는 신의주화장품공장의 비누직장(생산라인)을 방문하였다. 2008년 11월 25일자 로동신문은 “조선의 김정일 최고지도자가 최근 평안북도 공장기업소들을 시찰하면서 최신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현대 과학기술로 국민경제에 대한 기술개조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보도했다. 특히 “김정일은 공장 방문에서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따라 기계 생산절차의 현대화, 과학화, 정밀화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기계 생산의 튼튼한 기술적 기초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수준 제고의 담보라고 지적하면서 노동당이 제출한 과학중시의 방침을 잘 시행해 현대 과학기술을 토대로 국민경제의 기술개조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로동신문은 강조했다(로동신문, 2008/11/25).

3. 김정은 시대

김정은도 선대 지도자들과 같이 연초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책을 예고한다. 김정은은 2012년부터 매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그 중 경공업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2017년 1월 1일의 신년사를 통해, 경제·사회 분야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하며 자력자강으로 전민 총 돌격전을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과학기술 성과와 전력, 금속, 화학, 석탄, 철도, 기계공업의 과업수행을 강조한 데 이어 경공업·농업·수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통해 인민생활의 향상을 강조하였다.

<표 1> 신년사를 통해 본 김정은 시대 경공업정책
(2012~2017)

구분	내용	비고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함 - 방법론으로 ‘함남의 불길’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집권 첫해로서 신년공동사설로 발표 - 김일성 생일 100주년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 경공업을 함께 주공전선으로 언급 - 경공업 부문에서는 해당 공장들에 대하여 ‘원료, 자재 보장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질 좋은 소비품들을 증산하도록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권 이후 최초로 육성 신년사 발표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생활 향상에서 주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경공업 공장의 현대화 및 CNC화 강조 -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여러 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중앙TV를 통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 - 농업, 건설, 과학기술을 3대 사업으로 제시함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변을 가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해방 70돌과

15 년	<p>와야 함</p> <p>- 중앙과 지방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 정상화로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소비품, 학용품, 어린이 식료품 공급 강조</p>	<p>조선노동당 창건 70돌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p> <p>- 육성신년사 발표가 정례화</p>
20 16 년	<p>-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 촉구</p> <p>- 경공업 부문 현대화와 원료·자재 보장, 품질 제고, 국산화 강조</p>	<p>-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전면적 확립을 강조</p>
20 17 년	<p>- 경공업, 농업, 수산업의 획기적 발전 통해 인민생활 향상</p> <p>- 경공업 원료·자재 국산화, 인민소비품 다종화 및 다양화, 질 제고</p>	<p>- 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에 총력 집중, 자력자강으로 전민 총돌격전 전개 강조</p>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현지도 행보를 보면 그의 관심분야와 정책 방향성을 알 수 있다(정유석·곽은경, 2015: 156-218). 김정일의 뒤를 이은 3대 세습 지도자 김정은은 집권 5년차인 2016년 6월에 평양시 만경대구역 소재의 용악산비누공장을 방문했다. 2016년 6월 4일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선군정치 시대에 군사 시설을 방문하는 동시에 여성들의 관심이 많은 비누공장을 방문하여 교시를 하였다.⁵⁾ 김정일이 생전에 물비누 생산에 교시를 한 용악산비

5)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시기 위해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러 가지 물비누 등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비누공장을 용악산 기슭에 일떠세울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물비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데 대한 교시를 주시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 속에서 수요가 높은 머리물비누, 목욕용 물비누, 가루비누 등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인민생

누공장에 대를 이어 방문한 김정은은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여 애민지도자상을 선전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당국은 실제로 인민경제에 통치자금을 투자하지는 않고, ‘200일 전투의 기적과 위훈’을 내세우며 기관별 자체 해결을 강요하였다. 특별한 예산의 투입보다는 자체 노력으로 품질 향상을 강조함으로써 해당 공장관계자들은 직접 개발보다는 단기간 내에 신제품 생산이 가능한 중국으로부터 소재와 원료를 도입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2015년 2월 평양화장품공장을 시찰하고 북한의 화장품이 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외제 화장품의 장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산 화장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까지 했다. 김정은은 “외국산 마스크라는 물에 들어가도 유지되는데 북한산은 하품만 해도 너구리 눈이 된다”라고 언급하며, 북한산의 우수성을 맹목적으로 칭찬하기보다는 워터프루프(방수) 기능과 번지지 않는 유지력을 갖춘 외제 마스크라를 참고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랑콤, 샤넬, 시세이도 등의 화장품 브랜드를 언급하면서 북한 화장품 또한 세계적으로 겨룰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⁶⁾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무결점만을 내세웠던 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북한 제품의 문제점을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정은의 발언은 이례적인 행보이며 동시에 김정은이 젊은 나이로 인해

활 향상과 직결되어 있는 공장, 당에서 중시하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일떠서고 있는 룡악산비누공장 건설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로동신문, 2016/06/04).

- 6) 북한이 랑콤과 샤넬 등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에 도전하기 위해 제품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러시아 관영 ‘로스스카야가제타 RBTH’는 지난 2016년 2월 20일 “주체 사상의 나라 북한이 조만간 랑콤과 샤넬, 크리스찬 디올에 뒤지지 않는 향수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양의 거대 화장품 공장 ‘은하수’가 그런 노력의 중심에 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노창현, “북한화장품 ‘은하수’ 세계 도전? 러 신문” (중앙일보, 2016/02/23).

서 겪을 수 있는 지도력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관리 방식을 바꾸어 기업이 이윤을 남길 경우 임금 인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북한산 마스크라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을 촉진시키고 브랜드 경쟁을 촉발할 수 있도록 자본주의 생산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북한 경제관리방식의 일부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은 화장품 성분 및 용기 등에서 자체 생산이 어려운 소재와 품목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한다. 화장품의 성분은 주로 화학공업의 부산물과 원료 및 자연산 열매나 식물 등을 토대로 제조된다. 북한은 화장품의 원료를 전부 자체 생산하지 못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사용한다. 김정은은 현지지도 4개월 후인 10월 29일에 완공된 평양시 용악산비누공장을 재차 방문하여, 불과 몇 달 사이에 대규모의 현대적인 공장이 완공된 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했다. 특히 그는 물비누와 세척제 품목 및 생산량 확대와 품질 향상, 제품 상표의 세련화, 비누 원료와 향료의 국산화 문제에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 최고 지도자가 6월 건설현장 방문 후 10월에 완공된 현장을 재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로서 애민지도자상 연출과 건설치적 부각 및 기한부 완공을 확인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 3월 28일 김정은은 북한식 백화점인 평양 보통강변 미래상점과 종합봉사기지를 방문했다. 김정은의 방문은 김일성, 김정일 선대의 사업을 자신이 잘 이어받고 있다는 점을 선전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 미래상점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5월 초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 해석되었다. 김정은은 지난 2012년 이 상점을 방문해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녀원(염원)대로 상점운영을 잘 하자”며 미래상점이라는 상호를 짓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매장들마다에 우리가 만든 화장품·일용품·전자제품·식료품을 비롯한 갖가지 질 좋은 상품들이 꽉 차 있는데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인 리설주와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방문하여 특히 여성들의 관심사인 화장품을 꼼꼼하게 돌아보았다. 김정은은 화장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질 좋은 상품이라고 치켜세웠고 현지지도 중에도 환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중앙일보, 2016/03/28).

북한의 화장품, 비누, 치약, 기타 화학제품 관련 일용품 생산 기업들은 2000년 이후 46개 업체로 파악되었다. 이 중 투자 및 생산 동향이 확인된 기업체 수는 29개사다. 투자 동향만으로 분류할 경우는 20여개로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 등 화장품 업체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진다. 제약공장과 유사하게 2000년 이후 합작회사 1개(묘향천호합작회사)와 자체 신규공장 1개소(평양향료공장)가 확인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주민들의 화장품의 수요 증대를 반증하여 공장을 신규로 확충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장품류와 비누류의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2014년 북한의 화장품 수입규모는 2009년 대비 10배가 넘는 약98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비누류 등은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동년 대비 20배가 넘는 2,05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외국산의 수입 증가는 북한 화장품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수요를 충당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특히 일부는 중국에서 화장품의 성분을 원료 형태로 수입하여 가공해서 생산을 증대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심완섭·이석기·이승엽, 2015: 106-108).

4. 북한의 화장품 공장 실태

북한에서 화장품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1954년 7월 13일 창립한 과학원⁷⁾ 산하 ‘경공업화학분원’에 속해 있는 ‘향료 및 화장품

공학연구소'다. 2010년 12월에 위촉된 이성만이 소장을 맡고 있으며, 조직은 향료연구실, 분석실험실, 미상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09년 7월 정부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평양시 동대원구역에 위치한 '식료일용공업성' 산하에 여러 공장이 속해 있다. 그 중에는化妆품을 생산하는 평양화장품공장과 신의주화장품공장이 소속되어 있다.

1) 신의주화장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은 1949년 9월 23일 건립된 북한 최대의 화장품 생산 공장으로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위치하고 있다. 1956년부터 튜브 치약, 1959년부터는 화장비누를 생산하고 있으며 1995년까지 화장크림을 생산하였다. 현재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화장비누, 치약, 화장크림, 머릿기름, 향수 등이다. 1999년 6월 8일 김정일 현지도 당시에 남신의주로의 이전을 지시하여 11월 7일 착공하였다. 연건평 24,000여㎡의 부지에 비누직장, 치약직장, 화장품직장, 보조직장, 공업시험실 및 기술준비실을 비롯하여 수십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9월 23일에는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2009년 9월 23일에는 창립 60돌 기념보고회를 진행하였다. 평양화장품공장이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의 작품이라면 신의주화장품공장은 김정일의 관심공장으로 최첨단 설비를 갖췄다. 이 공장에선 '봄향기'라는 브랜드가 생산되고 있으며 향수와 립스틱, 동안(童顏) 피부용 종합 화장품, 다양한 종류의 크림 등이 생산된다. 공장 측은 크림과 미용비누를 제조하는데 인근에서 생산되는 약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품질이 특히 좋다고 강조했다. 신의주를

7) 북한의 과학기술은 과학원에서 담당한다. 과학원장 지휘하에 기술 및 행정부서는 1실 21국 21위원회를 두고 있다. 직할연구소로는 전기, 반도체, 지질, 물리, 화학섬유 및 정보체계 등 28개 분야의 연구소가 있다. 건설, 기계, 생물, 세포 및 유전자, 석탄, 경공업, 철도, 수산의 7개 분야로 연구 분원을 두고 있는데 화장품은 경공업 분원에서 연구한다.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도 한 세트 가격이 1천 위안(약 19만원)이나 하는 북한 화장품을 기꺼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평양화장품공장

북한의 2대 화장품 공장 중의 하나인 평양화장품공장은 ‘은하수’ 상표를 부착한 각종 화장품을 생산하는 등 신의주화장품공장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화장품공장이다. 비누와 샴푸 및 살결물과 물크림을 비롯한 60여 가지의 기능성 화장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2003년 8월에 김정일이 현지도도를 하였고 2015년 2월 5일에는 김정은이 대를 이어 현지도도 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신문이 지도자의 특정 공장에 대한 현지도도를 보도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보도는 신의주와 평양화장품공장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공장이라는 사실을 상징한다. 노동신문이 아버지 김정일의 단순 현지도도 보도와 달리 화장품 생산에 대한 김정은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행태는 화장품 생산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이 매우 특별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김정은이 사람마다 화장품에 대한 기호와 욕구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비교적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여성들의 피부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기후와 생활환경 그리고 식성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과 사용법을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김정은의 화장품 공장 현지도도의 특징적인 교시 중의 하나는 저자극적이며 기능적인 화장품을 생산하라는 내용이다. 단순히 얼굴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을 생산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특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는

목표는 세계적인 화장품 생산의 추세다. 북한 화장품도 수준 높은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은하수’화장품의 인기가 괜찮다면서 만족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화장품 생산을 주문했다. 세계적인 상품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라는 요구는 북한산 화장품의 수준이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는 점을 암시한다.

북한 당국은 인기 품목인 '은하수' 화장품을 자체 개발했으며 인삼이나 알로에, 썩 등의 천연 재료를 이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피부에 좋은 제품을 제공한다고 홍보한다. 자연성분을 이용하여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기 때문에 중독이나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특징점이라고 선전하지만 세계적인 수준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북한산도 이제 중국산, 한국산 및 일본산 등 외제 화장품과 경쟁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고위층들은 장마당 등을 통해 북한산보다는 설화수 등 한국산 고급화장품을 구매한다. 김정은도 이를 의식한 듯 인민들이 다른 나라의 것이 아니라 은하수 상표의 북한산을 찾도록 유도하고 세계시장에서도 소문이 나아 한다고 강조한 사실은 한편으로 상품의 품질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측면과 동시에 북한산 화장품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암시한다.

사람마다 화장품에 대한 기호와 요구가 서로 다른 것만큼 크림, 향수, 살결물, 연지, 머릿기름, 화장비누 등을 여러 가지 기능과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잘 만들며 천연적이고 저자극적이며 기능적인 화장품들을 개발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은하수》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괜찮은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화장품을 생산하는데 모를 박고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화장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 우리 인민들이 다른 나라의 것이 아니라 《은하수》 상표를 단 우리의 화장품을

먼저 찾게 하고 나아가서는 《은하수》 화장품이 세계시장에서도 소문이 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조선중앙통신, 2015/02/05).

김정은은 2015년 2월 평양화장품공장 현지지도에서 앞으로 생산과 제품품질 제고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산공정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 △화장품의 품질을 담보하고 그 관리를 원만히 할 수 있게 하는데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석 및 검측설비들을 충분히 갖추기 위한 사업, △새로 꾸린 과학기술 지식 보급실 운영을 잘하여 공장 종업원들의 기술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사업,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포장용기와 상표도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벌려갈 것”을 지시했다. 또한 화장품 생산에서 앞선 나라들과의 기술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여 신제품 개발에도 주력할 것을 지적했다.

북한은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십 가지의 기능성 화장품들은 피부보호와 노화방지에 효과적이어서 여성들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알로에, 쑥, 인삼을 비롯한 천연 추출물을 배합하여 만든 살결물, 크림은 외국산 화장품들에 비해 효과가 우수하고 중독 및 부작용 현상이 없다고 선전한다.

김정은은 여성 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전 세계 언론이나 광고 및 내부 보고를 통해 파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은 선대와 달리 젊은 지도자이며 유럽 생활 경험이 있기에 외국산 화장품을 다양하게 접해왔으며, 배우자인 리설주와도 화장품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그는 여성이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한다. 김정은은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국가 정책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생산을 지시했다. 북한의 이런 모습은 '인민 경제'를 강

조하는 김 제1위원장의 지시가 성과를 내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2016년 5월의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연합뉴스, 2016/01/18).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와의 접촉이 많아지며 북한산보다 외국산 화장품을 많이 쓴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평소 정책적으로 국산화를 꾸준히 강조하였던 김정은은 자국산 제품의 품질을 높여 북한 주민들도 국산품을 애용하고 동시에 세계화를 통해 여러 국가의 국민들이 북한산 화장품을 사용하기를 희망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선망의 대상인 일본의 시세이도나 한국의 설화수 같은 제품을 만들어, ‘북한판 시세이도’, ‘북한판 설화수’로 외화벌이도 하고 북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를 기대했으나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화장품이라는 제품은 가장 시장 친화적이고 소비자의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위한 품질을 구비해야 하는데 북한의 계획경제의 특성상 단기간에 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다. 세대 10대 화장품 선진국들도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연구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3) 기타 화장품 공장

북한의 2대 핵심공장인 평양화장품공장과 신의주화장품공장 외에 북한에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강서화장품공장>, <청진화장품공장>, 함경북도 회령시 유선동에 위치한 <유선화장품공장>, 평양시 소재 인삼 화장품 생산전문공장인 <장미무역회사>가 있다. 또한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강구역 광화동에 위치한 <함흥일용품종합공장> 도 각종 비누 등 일용품을 생산하며 4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는 북한 전역에 공급하고 일부는 외국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

로 일용품, 화장품, 잡화를 생산한다. 평양시에 위치한 <12월7일공장>에서는 1회용 면도기와 화장품 등을 생산하며 김정일이 2009년 10월과 2010년 12월에 현지지도를 했다. 평안북도 삭주군 강안노동자구에 있는 <강안제29호공장>에서는 200여 명이 군수용 각종 배터리 및 전구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화학제품 생산라인인 ‘15호직장’에서는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화장품, 비누, 간장을 생산하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3차에 소속된 <9월21일제련소>는 1981년에 착공하여 1983년에 완공되었다. 강원도 문천시 문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8,000여 명이 근무하는 대형공장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당외화별이 사업소’로 불리는 이 공장은 광석을 이용하여 아연을 생산 및 수출을 하며 노동당 자금을 충당한다. 제련소 정문에는 “9월21일 제련소 나의 공장입니다”라는 김정일의 언동이 표기되어 있다. 화장품, 비누와 생활 일용품 약 60종을 생산하고 있고, 당국에서 원료 및 자금 지원 등 기업 여건이 양호하여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정상적인 식량 공급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 외 개성시 승전동의 <인민군제1102호공장>,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소재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도 화장품을 생산한다.

함경북도 연사군에 소재 <연사화학공장>과 함경북도 온성군 소재 <온성일용품공장>, 함경북도 청진시 소재 <청진연필공장>에서도 비누와 화장품을 생산한다.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수성동 소재 <수성식료공장>에서는 콩을 원료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된장, 간장, 비누, 화장품을 생산한다. 또한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서호동 소재 <서호수산사업소>에서는 주로 생선을 냉동 및 가공하지만 ‘생활필수품직장’에서는 가공하고 남은 생선 머리와 내장을 활용하여 화장품, 비누, 간유를 생산한다. 비누공장으로는 <평양비누공장>, <봉화비누공장>, <강서비누공장> 이 있다.

함경남도 이원군의 이원광산에서는 화장품 원료를 채굴한다. 일제 강점기부터 노천광에서 적철을 채취하여 수출하였으나, 1960년대부터는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활석을 채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일부는 북한 내부에 공급하고 있다. 1997년부터 전기공급 부족으로 더 이상의 지하 굴설은 하지 못하고 기존 채굴했던 갱도에서 작업하여 현재는 연간 3,600톤 정도를 채굴한다. 양강도 백암군 남계구의 남계광산은 화장품 원료이자 건축 미장재료와 수공예품으로 활용 가능한 곱돌(활석)을 채광한다. 활석은 주로 일본에 수출하며, 일본을 상대로 한 오랜 무역을 통해 국가자금 확보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아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광산이다. 화장품 용기를 제작하는 공장도 5곳이 있다. 함경북도 경성군의 경성도자기연합기업소 내 <경성도자기 공장>에서는 장식품과 화장품 용기를 제작하며 2008년 5월 김정일이 현지지도를 하였다. 자강도 희천시의 <희천경질유리그릇공장>과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의 <청진유리공장>에서도 식기류와 화장품 용기를 생산한다. 평양시 보통강구역의 <평양유리병공장>에서는 중국 수출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용기를 생산한다.

Ⅲ. 화장품 성분분석의 결과와 함의

북한의 일반적인 화장품 종류는 80가지 내외다. 국내 언론으로는 최초로 한겨레신문이 1989년 2월 15일 북한 백화점에서 구입한 10개 품목의 화장품을 소개했다. 스킨, 크림, 콤팩트, 파운데이션, 립스틱, 볼터치, 머릿기름 등이다. 북한에서는 흔하지 않은 남성용 화장품도 포함되어 있다. 28여년이 지난 현재 북한 화장품은 당시와 비교하여 품질은 물론이고 포장 용기가 훨씬 세련되어 졌으나 화장품 세트 구

성 품목은 그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품목은 기초화장품은 물론 색조화장품에 이어 마스크 팩까지 생산하는 등 80가지로 대폭 증가했다. 북한에서는 순우리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품을 일컫는 용어들도 한국과 조금씩 다르다. 다만 일부 제품의 경우는 외국어를 북한식으로 발음하여 작명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국내에 비비크림⁸⁾ 형식의 파운데이션과 같이 단순히 분크림으로 표기가 어려운 것은 빼아스와 같이 기존 외국어 제품명을 북한식으로 소리나는 대로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표 2> 남북한의 화장품 용어 차이

한국	북한
스킨	살겉물
로션	물크림
나이트크림	밤크림, 나이트크림
영양크림	기름크림
파운데이션	분크림, 피아스크, 빼아스
비비크림	빼야
루스 파우더	가루분
파우더팩트	돌분
트윈케익	고체분
아이브로우	눈썹먹
아이라이너	아이라, 눈썹연필
뷰러	눈썹집게

8) 정식 명칭은 ‘블레미시 밤(Blemish Balm)’이다. 피부과 치료, 피부 재생 및 보호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잡티를 가려주고 피부톤을 정리해준다.

아이세도우	눈등분, 눈화장
볼터치	볼분, 볼연지
립스틱	입술연지, 구홍
립글로스	입술화장품, 구찌베니
색조화장	색화장
샴푸	머리물비누
헤어오일	머릿기름

북한 화장품의 4대 브랜드는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는 ‘은하수’, 봄향기합작회사에서 생산하는 ‘봄향기’와 ‘금강산’, 묘향천호합작회사에서 생산하는 ‘미래’ 등이다. 이 중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제품은 은하수 화장품과 봄향기 화장품이다. ‘은하수’ 화장품은 낮용 크림, 밤용 크림, 천연살결물, 물크림이 있고, 한국의 클렌징 폼에 해당하는 세척크림도 나온다. 북한 평양화장품 공장에서 올해 들어 ‘은하수’ 화장품의 다양화로 10종의 ‘자외선 피부보호 화장품’이 출시됐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보도했다(노컷뉴스, 2014/05/07). “살결물과 물크림, 크림, 기름크림, 분크림, 겔(젤) 등으로 다양하며 계절과 기후특성, 피부의 성질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사무, 외출, 등산, 해수욕 등 여러 환경들을 고려하여 생산한 화장품은 이용자들이 쓰기에 편리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조선신보는 “5살부터 12살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자외선방지 겔도 있다. 자외선 피부보호 화장품을 비롯한 기능성화장품을 많이 연구개발하고 제품화할 데 대한 방침은 김정은 원수님께서 내놓으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되는 은하수 화장품을 대대적으로 선전한다. 북한 대외용 홍보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2016

년 1월 28일 ‘은하수 화장품을 세계적인 화장품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양화장품공장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은하수 화장품을 세계적인 화장품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지난해에 자체의 기술역량으로 80여 가지의 화장품을 사람들의 기호와 특성, 취미, 사용용도 및 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제품규격을 과학적으로 설정해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전망을 열었다”고 소개했다.

1. 회사별, 품목별 생산제품

북한 화장품 80개 품목 중에서 직접 입수한 64개 조사 품목을 생산 회사별로는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평양화장품공장 8개, 묘향천호합작회사 17개, 봄향기합작회사 34개, 신의주화장품공장 1개, 평양향료공장 3개, 삼건무역회사 1개 제품이 각각 입수분석되었다.

<표 3> 회사별 생산 현황

생산회사	수량	생산회사	수량
평양화장품공장	8개	신의주화장품공장	1개
묘향천호합작회사	17개	평양향료공장	3개
봄향기합작회사	34개	삼건무역회사	1개

품목별로는 기초화장품이 47개 제품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평양화장품공장, 묘향천호합작회사, 봄향기합작회사에서 주로 생산한다. 페이스 팩 2개 제품은 모두 봄향기합작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다. 클렌징 폼 3개 제품은 평양화장품공장, 묘향천호합작회사, 봄향기합작회사에서 각각 생산한 제품이었다. 샴푸와 린스 각 1개 제품은 봄향기합작회사에서 생산되었다. 비누 3개 제품은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향료공

장, 삼건무역회사에서 각각 생산되었다. 치약 1개 제품은 묘향천호합작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이었다. 색조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립글로스과 립스틱 각 1개 제품은 봄향기 합작회사와 평양화장품공장에서 각각 생산된 제품이었다. 컴팩트 1개 제품은 봄향기 합작회사에서 생산되었다. 향수 3개 제품은 모두 평양화장품공장과 평양향료공장에서 각각 생산된 제품이었다.

<표 4> 화장품 품목별 생산회사

제품구분	수량	생산회사	비고
기초화장품	47	평양화장품공장, 묘향천호합작회사, 봄향기합작회사	
페이스 팩	2	봄향기합작회사	
클렌징 폼	3	평양화장품공장, 묘향천호합작회사, 봄향기합작회사	
샴푸·린스	2	봄향기합작회사	
비누	3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향료공장, 삼건무역회사	
치약	1	묘향천호합작회사	
립글로스	1	봄향기합작회사	색조화장품
립스틱	1	평양화장품공장	색조화장품
컴팩트	1	봄향기합작회사	
향수	3	평양화장품공장 평양향료공장	

2. 성분분석 결과와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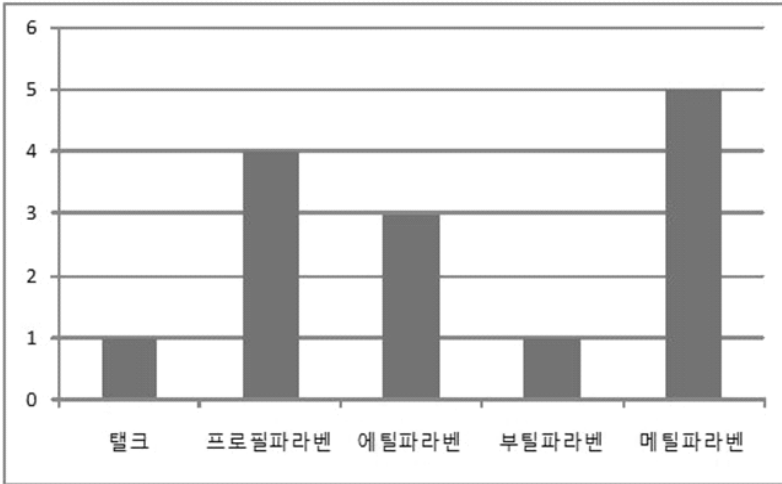
전성분 분석 결과 북한 화장품에 대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 화장품에는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으로 국내에서는 논란이 있는 성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전체 64개의 분석대상 품목 중 7개(11%) 제품에서 유해성 이슈가 존재하는 성분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유해 논란 성분은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에틸파라벤, 부틸파라벤, 탈크(talc) 등 5가지 성분이다. 검출된 횟수는 메틸파라벤 5회, 프로필파라벤 4회, 에틸파라벤 3회, 탈크 1회, 부틸파라벤 1회로 대다수의 유해성 이슈 성분은 파라벤 계열 성분으로 확인되었다. 파라벤(paraben)은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죽이는 특성이 있어서 방부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인체에 흡수 시 내분비계 교란에 대한 우려가 큰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점차 사용을 기피하는 성분이다.⁹⁾ 최근에는 파라벤이 유전자(DNA) 손상을 일으켜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¹⁰⁾ 탈크(talc)는 활석을 분말화한 가루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어 폐에 치명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파라벤 계열의 성분이 검출된 제품(92%)에서 파라벤이 성분표기에서 누락되었다. 북한에서도 파라벤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여 파라벤 성분이 사용된 것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혹은 북한의 보건 위생 수준으로 보

9) 한국 식약청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허용한 파라벤은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등 총 6가지이다. 하지만 파라벤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2011년부터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만 3세 이하 영유아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유럽연합의 경우도 0.19%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지만 한국 식약청의 경우에는 여전히 0.8% 상한선을 고수하고 있다.

10) “[이브닝 이슈] 화장품, 알고 쓰십니까?...‘파라벤’ 유방암 유발 논란.”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1800/article/3562305_18437.html(검색일: 2017년 5월 15일).

아 파라벤에 대한 규제 기준이 아직은 부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북한化粧품의 국내 유해성 이슈논란 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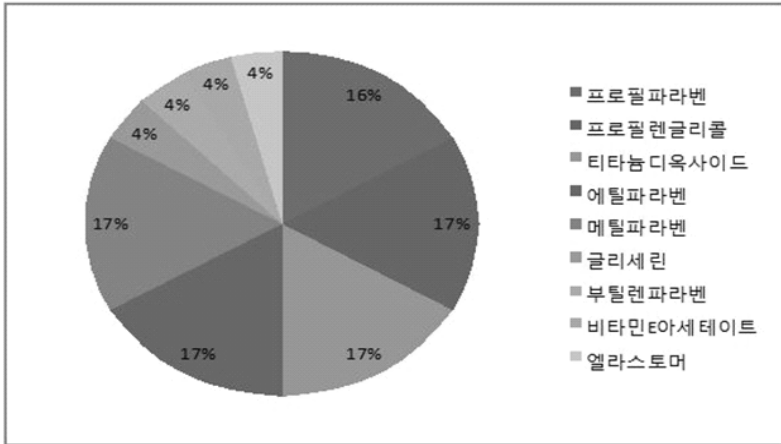


둘째, 제품의 성분표기에 기입되지 않은 성분이나 물질이 검출되었다. 전체 64개의 분석대상 품목 중 17개(27%) 제품에서 성분표기에 기입되어있지 않은 성분이나 물질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성분은 프로필파라벤, 에틸파라벤, 메틸파라벤, 부틸렌파라벤, 프로필렌글리콜, 티타늄디옥사이드, 글리세린, 비타민E아세테이트, 엘라스토머 등 9가지 성분이다. 검출 횟수는 프로필파라벤, 에틸파라벤, 메틸파라벤, 프로필렌글리콜, 티타늄디옥사이드 각 4회, 부틸렌파라벤, 글리세린, 비타민E아세테이트, 엘라스토머 각 1회이다. 프로필파라벤, 에틸파라벤, 메틸파라벤, 부틸렌파라벤 등의 파라벤 계열 성분은 전술한대로 인체에 흡수 시 내분비계 교란에 대한 우려가 큰 방부제 성분이다. 프로필렌글리콜은 습기를 흡수하는 수분 보유 효과가 뛰어나 보습제의 원료로

쓰인다. 티타늄디옥사이드는 자외선 차단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만들어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글리세린은 모발이나 피부에 수분을 보습하고 건조를 막아주는 성분으로 프로필렌글리콜과 함께 보습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비타민E아세테이트는 비타민E에 아세트산에스테르기를 더해 비타민E 성분의 안정화를 높인 기능성 첨가원료이다.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구성하는 불포화지방산의 과산화(過酸化)를 억제하여 노화피부의 특징인 탄력성 저하, 지선기능 저하와 색소침착 등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라스토머는 실리콘을 사용한 제형에 사용되는 성분이다. 실리콘을 사용한 제형은 오일을 사용한 제형에 비해 한 단계 진보된 형태의 제형으로 사용감이 더욱 부드럽다. 이 부드러운 느낌을 내는 성분이 엘라스토머이다. 다만 검출된 횟수 중 에틸렌과라벤 4회, 메틸과라벤 2회, 프로필과라벤 1회는 0.003% 수준의 극미량이 검출되었다. 이는 공정과정 중에서 의도치 않게 섞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공정과정에서 극미량이 제품에 첨가된 것을 ‘트레이스(trace)’라고 하는데, 트레이스는 오차범위로 인정된다. 하지만 인체에 유해성이 없으며 기능성 첨가 성분인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비타민E아세테이트, 엘라스토머 등의 성분을 제품의 성분표기에 기입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의외다. 다만 미표기 성분이 극히 소량이라 표기의 필요성을 굳이 인식하지 못했거나 당초 의도하지 않은 물질이나 다른 물질에 포함되어 첨가되거나 혹은 북한은 남한과 달리 표기에 대한 기준이 확고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된다.¹¹⁾

11) 2008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전성분 표시제도는 소량이라도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용량이 10ml 초과 50ml 이하, 또는 중량이 10g 초과 50g 이하 화장품도 공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전성분을 표기할 필요가 없었으나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타르 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배합 한도를

<그림 2> 성분분석에서 확인된 미표기 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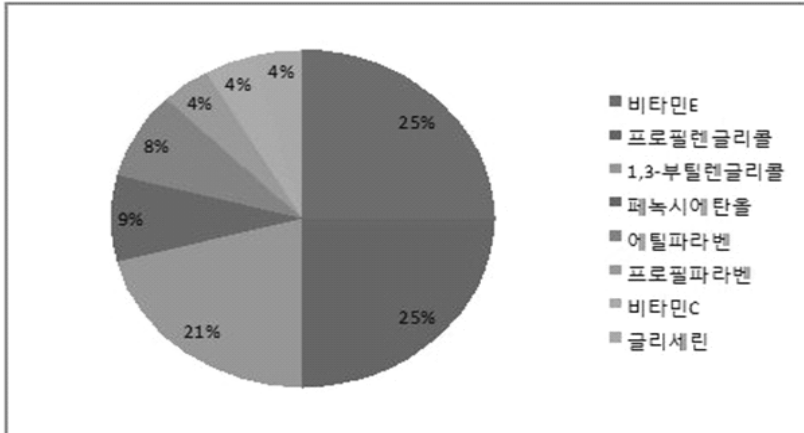
셋째, 제품의 성분표기에 기입되어 있는 성분이 실제로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전체 64개의 분석대상 품목 중 19개(30%) 제품에서 제품의 성분표기에 기입되어 있는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몇몇 기능성 제품의 경우에도 주요 성분으로 간주되어야 할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었다. 성분표기에 기입되었으나 성분분석 결과 검출되지 않은 성분은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비타민C, 비타민E,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1,3-부틸렌글리콜, 폐녹시에탄올 등 8가지 성분이다. 검출되어야 할 성분이 누락된 횟수로는 비타민E, 프로필렌글리콜 각 6회, 1,3-부틸렌글리콜 5회, 폐녹시에탄올, 에틸파라벤 각 2회, 프로필파라벤, 비타민C, 글리세린 각 1회이다. 비타민E 성분은 전술한대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피부의 과산화를 억제하고 주름개선 효과 및 표피 재생 기능을 한다. 비타민C 성분은 항산화 성분으로, 조직 성장 및 복구를 도우며 신체 단백질의 1/3을 차지하는 콜라겐 생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는 표기하게 되었다.

성을 돕는다. 콜라겐은 피부와 세포를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점막을 형성하고 피부 주름을 개선하며 피부 처짐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여 노화방지를 돕는다. 비타민E와 비타민C 등 비타민 성분은 불안정하여 공정 과정에서 쉽게 분해되어 파괴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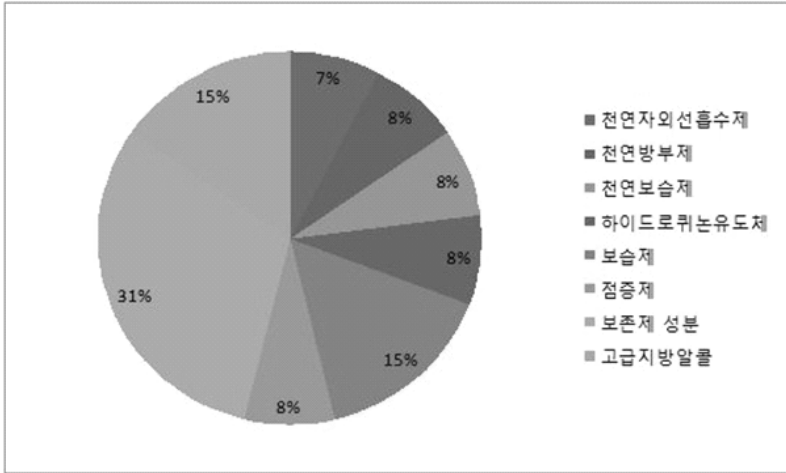
북한 화장품 제품에서 비타민 물질이 성분표기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검출되지 않은 이유는 북한 생산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제형 내 불안정성을 극복하지 못해 성분 첨가 과정에서 비타민 성분이 파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비타민 성분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비타민 유도체'를 사용한다. 유도체란 '비타민의 대체 성분으로 인체에 흡수 후 비타민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성분으로 전환되는 성분을 의미한다. 유도체 성분의 사용으로 국내 제품에서는 비타민 성분이 파괴되지 않아 효능이 유지된다. 반면 북한의 생산기술은 아직 유도체 성분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은 보습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다. 1,3-부틸렌글리콜 또한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피부 표면에 흡수하고 있던 습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보습성분의 일종이다. 보습기능은 기초화장품의 주요기능이며 피부 주름개선, 피부 노화방지, 피부 미백기능은 해당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에서 각각 강조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실제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의 기능에 대한 신뢰가 매우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페녹시에탄올은 방부제 기능을 하는 성분으로 본래 방부제로 많이 쓰이던 파라벤이 독성으로 인한 유해성 이슈가 불거지자 대체성분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포함되어야 할 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방부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 사용기한이 극히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전성분 표기성분 불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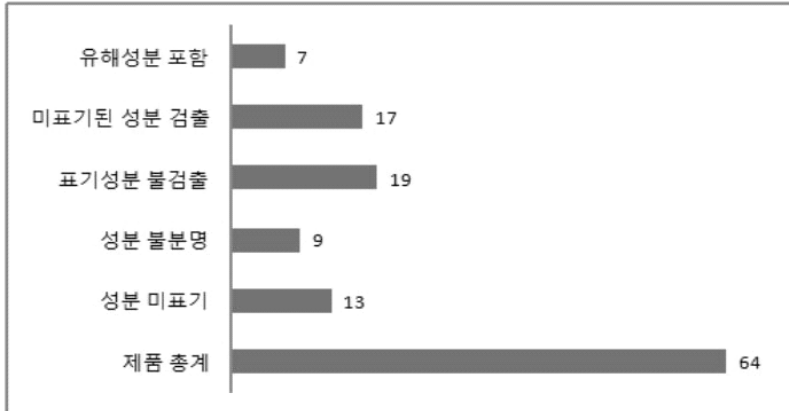
넷째, 제품의 성분표기에 기입된 성분의 정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전체 64개 분석 품목 중 9개(14%) 제품에서 성분표기에 기입된 물질의 정확한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불분명한 성분들은 보존제, 보습제, 고급지방알코올, 천연방부제, 천연보습제분, 천연자외선 흡수제, 하이드로퀴논유도체, 점증제 등 8가지 성분이다. 정체불명의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보존제 성분이 4회, 보습제, 고급지방알콜로 표기된 성분이 각 2회, 천연방부제, 천연보습제, 천연자외선흡수제, 하이드로퀴논유도체, 점증제가 각 1회 확인되었다. 일반 보존제와 천연방부제 등 보존제 성분이 전체 불분명한 성분의 39%로 확인되었고 천연자외선흡수제, 천연방부제, 천연보습제 등 화학성분 대신 천연재료 사용을 시도한 제품이 전체 불분명한 물질의 23%로 나타났다. 이는 점차 화학성분 대신 천연물질을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국내외 화장품 생산 추세를 모방했으나 기술의 한계로 인해 아직은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 불분명한 성분의 정체



다섯째, 아예 제품의 성분표기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있다. 전체 64개 분석대상 품목 중 13개(20%) 제품은 성분표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내의 경우 2008년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지침’에 따라 제품에 첨가된 모든 성분을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성분표기와 실제 첨가된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성분표기에 나열된 순서도 두서없이 나열되어있는가 하면 심지어 성분표기 자체가 없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북한에는 화장품의 성분표기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강제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표기성분 불검출이 19개, 미표기된 성분 검출 17개, 성분 미표기 13개, 성분 불분명 9개, 유해 성분 포함 7개로 분석되었다. 결국 북한은 전성분 표시제도를 정확하게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기준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 64개 분석대상 품목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IV. 북한 화장품의 품질 특성 및 평가

1. 기초화장품 생산에 주력

국내 화장품 시장은 성별, 피부 타입별, 함유성분별로 제품군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다. 반면에 북한 화장품은 대부분의 제품이 보습 기능에 초점을 둔 기초화장품이었다. 북한이 기초화장품 중심으로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로 추정한다. 첫째, 기술적인 한계이다. 품질 좋은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학공업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화장품을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경공업에 해당하지만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성 등 선진국 수준의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각종 인공 및 천연물질에 대한 발견을 위한 바이오공학, 각종 화학성분의 제조 및 배합 등 유기 및 무기화학공업과 용기생산을 위한 금형산업, 플라스틱산

업 등의 복합적인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북한 화장품의 불안정한 제형은 낙후된 화학공업 기술이 일차적으로 문제이다. 제품 용기의 품질이 낮은 이유는 금형기술의 낙후에 기인한다. 해외의 고급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이 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해당 국가들의 경제력의 수준을 감안할 때 당연하다. 국내외에서 호평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한국산 제품의 경우에도 아세안(ASEAN) 10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EU 27개국과 일본, 미국과는 일부 품목에서 여전히 비교열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경우 각종 재료에 대한 기술개발의 한계 때문에 첨단기술이 필요한 색조화장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¹²⁾

둘째, 북한 주민들의 피부 상태에는 기초화장품을 통한 영양 공급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양상태가 풍족한 일부 고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단백질이나 지방 섭취가 제한적이다. 단백질 섭취가 피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영양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중성타입의 피부를 가진 피실험자들 일수록 대조군에 비하여 단백질의 섭취량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구환·정지연·양현욱, 2014: 869). 부실한 영양 상태에 더해 춥고 건조한 기후 역시 북한 주민들의 피부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찬 대륙성 고기압이 배치되는 가을, 겨울의 건조한 기후는 피부를 푸석푸석하게 만든다. 따라서 북한은 보습기능을 가진 기초화장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과정에서 입수한 북한화장품 중 기초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의 대다수는 보습기능에 중점을 둔 기능성 제품이거나 보습성분이 첨가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탈북자(이○○) 심

12) 한국산 화장품 역시 기초화장품에 대해서는 세계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으나 향수 등 색조화장품 부문에 대해서는 기술 격차가 있다.

층인터뷰에 따르면 평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 보습효과가 있다고 증언한다.¹³⁾

셋째, 북한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색조 화장을 하는 여성의 이미지와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색조화장품 생산에 소극적이다. 북한은 여성인력을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상 교양을 하여 정신력으로 무장시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1948년 창간된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여성잡지 『조선녀성』은 각종 경제건설 과정에서 생산성과가 높은 인물들을 ‘노력영웅’으로 선정하여 모두가 본받아야 할 특별한 사람으로 선전한다. 일종의 북한판 여성 스타하노프 운동(Stakhanov Movement)¹⁴⁾이다. 이러한 노력영웅은 사회주의 체제가 바라는 모범적인 모델로서 여성 대중들이 이들을 모방하여 따라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유도한다. 북한이 제시하는 여성영웅은 △농업, 수산업 등 노동 효율성 증대에 혁혁한 공을 세운 노동력 유형,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투철한 혁명정신을 보인 여성혁명가 유형, △기술, 과학, 체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전문직 직업여성 유형, △현모양처 유형, 그리고 △항일투쟁 및 한국전쟁 영웅 및 원호(援護)유형이다(남성욱 외, 2016: 28-33; Sung-wook Nam, Su-lan Chae, Ga-young Lee, 2017: 51-83). 이는 사실상 조국을 위해 여성성을 희생하고 열심히 노동에 매진하는 여성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제시

13) 반면에 영양상태가 풍족한 고위급 계층의 주민의 경우 주로 수입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입화장품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북한산 화장품은 사용 시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하는 등 피부 영양이 풍부한 사용자에게는 잘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4) 소련의 제2차 5개년계획 중 국민경제 전체에 걸쳐 전개된 노동생산성 향상운동으로 사회주의적 경쟁의 한 형태다. 1935년 소련의 탄광부 알렉세이 스타하노프(1906~1977)가 새 기술을 최대한 이용, 공정을 혁신함으로써 경이적인 생산증가를 가져온 데서 비롯돼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확대됐다.

하는 정책으로 색조화장품 사용 등 개인의 가꾸기에 관심을 두는 여성과는 거리가 있다. 북한 여성들은 당국의 정책에 순응하여 화려한 색조화장품 사용을 지양해 왔고 북한의 색조화장품 개발 및 생산 역시 부진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여성의 미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선에서 기초화장품 생산에만 집중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2. 애민정치와 새로운 소비 계층 출현

최근 들어 북한의 화장품 생산 정책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012년 이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북한이 경공업 발전을 강조하며 생필품 생산에도 주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이 본인의 부족한 정통성을 극복하기 위해 ‘애민적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후계자로 확정되기 전 10년 동안 당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등의 주요부서에서 실무를 배운 김정일과 달리 권력의 인수인계 기간이 짧았던 김정은은 완벽한 지지기반을 다질 시간이 부족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엘리트층 대상으로 한 ‘공포정치’와 인민을 대상으로 한 ‘애민정치’다. 김정은은 북한 지도자로는 이례적으로 자책성 발언(로동신문, 2017/01/01)을 하는가 하면, 주로 외화벌이용으로 수출하던 수산물을 식량으로 수재지역 인민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¹⁵⁾ 특히 김정은이 2015년 3월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화장품 생산의 다양화 및 품질향상을 지시한 점, 경공업부문을 활성화시켜 생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할 것을 강조한 점(로동

15) 수재지역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선물하는 행동은 이해하기 힘들며, 북한의 수산물 수출이 주된 외화벌이 중 하나라는 점을 볼 때 수출을 위해 양식하는 자라나 메기 등의 고급 물고기를 선물했을 가능성은 적다. 대신 군부대 등에서 보유하던 물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 2017/02/04) 역시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 구축 전략으로 추정된다. 여성대중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화장품 생산에 관심을 쏟아 대중들의 실제 생활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조선일보, 2015/03/17).

둘째, 사적 경제활동이 제한적으로나마 보장되는 시장이 발생하며 소비 욕구가 증대된 새로운 여성들이 소비의 주체로 등장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공식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고 여성들은 시장에서 거래 및 소비와 문화의 주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인구의 증가는 시장에서 구매력을 갖춘 여성인구의 증가로 이어졌다. 북한에서 시장은 문화를 생성해 내는 공간이자 물질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조영주, 2014: 111-115). 시장의 성장으로 장식품과 화장품 등 외모 꾸미기 관련 물자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다. 평양시내에 호화복합공간인 해당화관에 비싼 수입화장품이 진열되고 김정은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화장품코너를 둘러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북한에서도 여성의 몸 가꾸기를 터부시하는 흐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과시한다. 2016년 12월 24일 김정은이 농업근로자동맹 참가자들에게 보낸 선물에 은하수 화장품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태양절 등 각종 기념일에 선물로 화장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희생만을 강요해오던 북한에서 이제는 그 반대급부로 여성의 미적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새로운 경제활동의 주체로 떠오른 여성들의 소비 욕구 충족은 물론 충성심을 고취시켜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장려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3. 낙후된 화장품 기술과 대량생산 체계 미흡

화장품 산업은 단순한 경공업이 아닌 화학공업, 금형산업, 플라스틱산업, 바이오공학 등 다양한 산업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분야다. 따라서 화장품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한 북한의 경우 화장품의 품질이 매우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 강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및 한국 국적의 브랜드가 전 세계 화장품 업체를 평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국가의 화장품 기술은 그 국가의 경제력과 정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화장품의 전성분 분석 결과 제조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소실되어 제품의 주요 성분이어야 할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이 딱딱하게 굳거나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고 손으로 만져보면 마치 푸딩처럼 끈적끈적하게 엉기는 등 안정성이 떨어지는 제품이 많았다. 화학기술의 한계로 인한 불안정한 제형 때문인지, 제품을 포장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기술력의 한계인지 정확한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 대다수 제품의 유통기한이 최대 2년에 불과해, 통상적으로 3년인 국산 제품과 비교하여 매우 짧은 것으로 미루어 포장과 보존기술의 한계일 가능성이 크다.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개별 화학물질에 대한 완벽한 관리와 제조가 화장품 산업의 기본 여건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은 여전히 경공업 제품의 수준이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에서 목표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물정치’를 시행한다. 선물은 인민들이 평소 갖고 싶으나 생산량이 부족하여 구입하지 못하는 품목을 증정해 그들의 환심을 산다. 가전제품이나 의류 등이 인기제품이다. 여성들의 경우 품질 좋은 화장품을 선

호한다. 선물로 제공되는 품목 등은 평소 제작해서 쌓아 놓은 것이 아니라 기념일이나 국경일 등을 앞두고 선물 제공 방침이 결정되면 정해진 단기간 내에 야간작업 등을 통해 긴급 제작한다. 김정은은 인민중시 기조를 외형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수차례의 선물 증정 행보를 보였다. 김정은은 자신의 젊은 감각과 부인 리설주의 조언 등으로 여성용품을 선물로 증정했다. 2016년 5월 14일에는 북한이 노동당 7차 대회 참가자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겼고(자유아시아방송, 2016/05/13), 8월 26일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보냈다(연합뉴스, 2016/08/26). 또한 김정은은 12월 24일에 2016년 한해의 알곡생산량에 만족하여 농업근로자동맹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증정했는데 선물 품목은 판형텔레비전, 당과류, 고급술 세트, 은하수 화장품, 고급 오리털 동복 등이었다(자유아시아방송, 2016/12/23).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집권한 첫 해인 2012년 3월 8일 국제부녀절에 행사에 참여한 은하수악단을 비롯한 예술인과 근로자 700~800여 명에게 선물하기 위해 ‘봄향기 화장품’을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화장품은 평소 수요에 비해 재고 및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당시 신의주화장품공장은 800세트를 일주일 내에 특별 제조해야 했다. 철야전투로 밤낮없이 공장을 돌려 겨우 생산량을 맞추어 선물을 나누어주기 위해 당일 새벽에야 평양역에 화장품 공급량이 모두 도착했다고 한다.¹⁶⁾ 이 일화를 통해 김정은이 여성용품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과 동시에 북한의 내로라하는 화장품공장에도 800세트의 재고가 없을 정도로 열악한 산업 현실을 엿볼 수 있다.

16) 탈북자 김OO 면담결과(2017/01/09).

4. 낙후된 용기제조 기술

화장품의 완성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내용물, 용기 및 포장케이스와 마케팅 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물을 제조하더라도 이를 담은 용기가 양호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사용에 큰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용기는 사실상 화장품 내용물과는 별개의 생산 기술이다. 용기는 플라스틱을 동이나 철로 만든 금형 틀에서 찍어낸다. 정밀한 금형기술과 플라스틱 기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입수한 제품의 일부 용기는 국내 소비자 기준에는 미달했고 불량품도 확인되었다. 뚜껑이 잘 닫히지 않거나 닫히더라도 매우 뻑뻑하였고 그나마 정확하게 맞물리지 않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처럼 제품의 뚜껑이 잘 닫히지 않으면 제품이 외부 공기에 노출되어 변질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른 유통기한의 단축은 자명한 일이다. 용기의 강도가 약해 보관이나 이동시 용기가 파손되는 경우가 잦아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변질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스프레이 제품의 경우 분사기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 여러 번 눌러도 액체가 분사되지 않거나 너무 강하게 분사되어 내용물이 지나치게 세게 튀어 사용이 어려웠다. 용기의 디자인은 세련미가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몇몇 고급제품은 프랑스의 유명 브랜드 ‘랑콤’사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국산제품과 비교해도 디자인적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제품의 경우에는 색상과 형태가 촌스러웠다. 용기의 완성도와 강성을 통해 북한의 금형산업과 플라스틱산업 등의 역량을, 용기 디자인을 통해 북한의 미적 수준과 디자인 역량을 각각 가늠할 수 있다. 최근 평양 당국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국가과학원 출신의 고급 인력을 투입하여 화장품 공장의 현대화와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로동신문, 2017/03/15). 향후 정기적인 북한 화장품 분석을 통해 화학공업, 플라스틱 등

소재공업 및 철과 동의 기계 금형제조공업 등 과학기술 개발의 성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여성은 외모 가꾸기를 통한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국가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을 모토로 김일성,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북한 여성들은 이데올로기로 무장하여 당의 혁명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했다. 김일성 등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들의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역설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부족한 과학적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1949년 신의주화장품공장을 설립하는 등 정권 수립 초창기부터 기초적인 수준의 화장품 생산에 주력해왔다. 3대 지도자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보다는 상대적으로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화장품을 비롯한 생필품에 대한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다. 계획경제가 붕괴되고 배급이 중단되는 등 내부의 불만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애민정책’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어 3대 세습 통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한편으로는 사경제의 확대를 북한 시장경제의 주체로 떠오른 여성들의 소비 욕망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시장을 통해 유입된 외부사조의 영향으로 북한 여성들은 화장과 성형수술을 통한 외모 가꾸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사조를 접한 주민들의 수요를 이전과 같은 사상교육과 같은 경직적인 방법만으로 억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여성들의 통상적인 미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강요받으면서 억눌러 왔던 여성들의 미적 욕구를 일정수준 인정하여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김정은의 화장품 육성정책은 시장경제의 소비주체로 떠오른 여성들의 니즈를 감안하는 동시에 그동안 억눌러 왔던 여성의 미적욕구를 일정부분 만족시켜 ‘애민적지도자’의 이미지를 전면에 부각하고, 이를 통해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독재자의 여성맞춤형 통치전략이다.

본 연구 결과 북한 화장품이 입수된 시점에서의 북한의 화장품 생산 기술은 기초화장품의 경우 국내의 1990년대, 색조화장품은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정은의 반복된 현지지도와 독려에 따라 북한 화장품 업계는 자동화·무인화 공정을 강화하고 원료의 국산화를 도모하는 등 경쟁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로동신문, 2017/02/04). 화장품의 품질은 바이오 공학, 화학공업과 금형산업, 플라스틱산업 등의 여러 분야의 자연과학이 집약된 결과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김정은이 본격적인 화장품 생산 정책을 시작한 이후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의 주기와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화장품 생산에 사용된 전반적인 북한 과학기술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화장품 기술개발 향상에 힘을 쏟는 것을 통해 김정은은 인민생활에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애민적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구 대기권 밖으로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지구 궤도로 재진입할 때 6천도의 고열이 발생하여 발사체가 녹아내리거나 변형이 일어난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17년 7월 4일과 2017년 7월 28일 2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여 지구 재진입 기술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주장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 세계 6개국

만이 보유한 잠수함미사일발사(SLBM) 기술을 시험하는 북한 당국이 제형이 불안정한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금형기술의 낙후로 내용물이 균일하게 분사되지 않는 등 기술적 한계를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비자 경시 정책의 결과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북한 화장품 생산의 각종 문제점이 단순히‘외모 가꾸기’를 지양해온 정책 때문인지 실제 북한 과학기술의 한계인 것인지는 추후 생산되는 화장품을 분석할 경우 분명해질 것이다.

■ 접수: 10월 10일 ■ 심사: 11월 2일 ■ 채택: 11월 8일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구환·정지연·양현옥. 2014. "SK88이 단백질 증가와 여성 피부의 탄력 및 보습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12권 6호.
- 김석향. 2012.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에 나타나는 추세 현상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
- 김양희. 2011. "조선녀성에 나타난 북한의 식생활정책: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41호.
- 김지영. 2014. "국내외 남성용 화장품 시장 현황 및 상표출원 동향 분석." 『KHIDI 보건산업 브리프』, 제147호.
- 김정희. 2006. "20~30대 여성의 피부 타입 측정에 관한 연구 -국내외 화장품 회사의 피부 측정방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복식』 제56권 5호.
- 남성욱 외. 2016. 『통일한국의 양성평등제도』.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평화연구학회.
- 남성욱. 2017. "북한의 주체미학과 화장문화(Make-up)에 관한 연구: 화장행태와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8권 3호.
- 서보혁. 2013. "유엔 북한인권정책의 특징과 추세," 『현대정치연구』, 제6권 1호.
- 심완섭·이석기·이승엽. 2015. 『북한의 화학산업 역량 재평가와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2000년 이후 시설투자 및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자료 2015-248. 세종: 산업연구원.
- 안지영. 2011. "북한 가정생활에서의 여성상 연구 - 2000년대 북한 영화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51권 .
- 양옥경·이미경. 2010. 『북한 사회보장제의 축소와 가족경제: 북한여성의 생활과 의식 변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유은아·이향애. 2010. 『화장품의 재발견』.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 유창조·정혜은·홍성태. 2005. "여성의 화장에 대한 욕구와 그에 따른 화장품 소비행위에 대한 심층연구." 『경영학연구』 제35권 1호.
- 이명휘·박희진. 2010. "7·1조치 이후 북한 여성의 사경제활동."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삶』,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정유석·곽은경. 2015. "김정은 현지도에 나타난 북한의 상징정치." 『현대북한연구』

제18권 3호.

- 조영주.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정치."『북한연구학회보』제18권 제2호.
- 주영주·이순희. 2016. "한국 중년여성의 외모관심도가 화장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제22권 1호.
- 황소라 외. 2012. "화장품용 유화 제조기술 최근동향."『KSBB Journal』제27권 4호.
- 명순영·노승욱. 2015. 한국 화장품 SWOT 분석…기초화장품 기술 좋지만 색조 약하고 인지도 낮아."『매일경제』6월 12일.
- 『중앙일보』. 2016. "북한화장품 '은하수' 세계 도전? 러 신문." (3월 23일).
- 『자유아시아방송(RFA)』. 2016. "북, 농업대회 참가자들에 선물가득." (12월 23일).
- 『연합뉴스』. 2016. "북, 23년 만에 청년동맹 대회 개막." (8월 26일).
- 『연합뉴스』. 2016. "23종 38점 새로 개발…" (1월 18일).
- 『데일리NK』. 2008. "평양화장품공장 '소비자 취향' 따라 기술혁신." (2월 20일).
- 『중앙일보』. 2016. "부인 이설주와 북한식 백화점에서 민생행보 나선 北 김정은." (3월 28일).
- 『자유아시아방송(RFA)』. 2016. "북, 당대회 참가자에 선물 보따리." (5월 13일).
- 다음백과. "전성분표시제."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58XX49100010\(2017/05/10\)](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58XX49100010(2017/05/10)).
- MBC뉴스. "[이브닝 이슈] 화장품, 알고 쓰십니까?…'파라벤' 유방암 유발 논란."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1800/article/3562305_18437.ht3562305_18437.html\(2017/05/15\)](http://imnews.imbc.com//replay/2014/nw1800/article/3562305_18437.ht3562305_18437.html(2017/05/15)).

2. 북한 자료

- 김일성. 1953.『김일성선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1997.『김일성저작집 제4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84.『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협의회에서 한 연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2016.『조선녀성 제4호』,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김순홍.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더욱 고조시켜." 『로동신문』, 2017년 3월 15일.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7년 1월 1일.

림정호. "국산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비약하는 우리의 경공업." 『로동신문』, 2017년 2월4일.

본사정치정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서고 있는 룡악산비누공장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로동신문』, 2016년 6월 4일.

전혜영. "우리의 원료로 다양한 기능성제품들을." 『로동신문』, 2017년 2월 4일.

최희명. "김정은, 北, 화장품 품질 지적하며 "하품만 해도 너구리는 되더라"." 『조선일보』, 2015년 3월 17일.

"김정일 총비서 락원기계련합기업소와 신의주화장품공장 비누직장을 현지지도." 『로동신문』, 2008년 11월 25일.

"김정은 제1비서 평양화장품공장 현지지도." 『조선중앙통신』, 2015년 2월 5일.

3. 국외 자료

Burlando, Bruno. 2010. Herbal principles in Cosmetic: Properties and Mechanisms of Action. Boca Raton, Florida: CRC Press.

Kornai, Janos. 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Sung-wook Nam, Jin Bae, Su-lan Chae, Ga-young Lee. 2016, "Study on Heroine Discourse under Kim Jong-un Regime in North Korea: Focusing on Articles of Women of Joseon."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7(1).

ABSTRACT

A Research on Ingredient analysis of
Cosmetics and Production Policy in North
Korea: Focusing on 64 skin care and color
cosmetics

Nam, Sung-wook

(Professor, Korea University)

Oh, Jun-chol

(Researcher, Korea University)

Chae, Su-lan

(Researcher, Korea University)

Lee, Ga-young

(Researcher, Korea University)

Bae, Jin

(Researcher, Korea University)

By looking into the ingredients of cosmetics and their containers produced in DPRK, this research examines the development of chemical engineering industry, as well as the living standards of the people in the country. Studies on North Korean cosmetic have not been previously researched. 64 products were procured for ingredient analysis of this study. The analysis were done from September 2016 to December 2016 at Amorepacific R&D center which is the market leading company on cosmetic filed in Korea. Meantim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number of 167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to examine usage of North Korean cosmetic products in North Korea. The analysis indicates three points.

First, some of North Korean cosmetic products contain harmful ingredients. These ingredients were found in 7 out of 64 products.(11%). Second, some products contain ingredients that are missing from ingredient information. 17 out of 64 products(27%) were detected for containing ingredients that were not mentioned on ingredient information (chart). Finally, some of ingredients mentioned in the ingredient information were not found. 19 out of 64 products(30%) did not contain major ingredients that were written on the ingredient informati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at the current level of development in cosmetic production in DPRK is similar to that level of Republic of Korea during 1970s and 80s. With Kim Jong-un's repetitive on site instructions and encouragement, North Korean cosmetic industry is seeking to improve its production line to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Key words: North Korean cosmetics, Ingredient analysis, complete checkup of component, skin care and color cosmetics, Light industry policy